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에 나타난 생태주의 연구*

최순근

차 례

- I. 머리말
- II. 문학과 생태학
- III.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와 생태주의
- IV. 조라 닐 허스턴의 생태의식
- V. 맺음말

I. 머리말

흑인 여성 작가 조라 닐 허스턴(Zora Neale Hurston)은 소설가이자 흑인 문화를 연구하는 민속학자로서, 그리고 인류학자로서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던 할렘 르네상스 이후의 문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동시대의 흑인 남성 작가들과 소설의 전개방식이나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허스턴의 독창적인 소설 구성과 글쓰기 방식은 당대의 작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¹⁾ 『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794)

1) 허스턴이 동시대 작가들로부터 강하게 비난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백인이 주도하는 질서 내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보잘 것 없는 지위와 처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이 그녀의 소설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1937년에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Their Eyes Were Watching God*)가 발간된 직후, 작품 속 여주인공 제니 그로포드(Janie Crawford)가 세 명의 남편을 거치며 마지막 남편인 티케익(Tea Cake)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내용을 접한 남성 작가들은, 작가로서의 개인적 욕망에만 충실한 작가(Gates, "Afterword" 186)로 허스턴을 폄하하였고,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는 제니의 성향을 문제시하며, "백인 독자

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의 여주인공 재니의 경험과 결혼생활에 거센 비난을 퍼붓던 작가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수와니 강의 천사』(*Seraph on the Suwanee*, 1948)가 발간되자, 흑인 작가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저버렸다고 허스턴을 몰아세웠고, 최근까지도 이 작품은 남성의 성적 폭력과 여주인공 아비 헨슨(Arvay Henson)의 수동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

근래 들어 허스턴과 그녀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그녀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흑인문화와 흑인 정서에 대한 그녀의 애착, 그리고 여주인공들이 겪는 성과 인종 문제에 대한 허스턴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사회비판적 시각은 허스턴을 흑인 여성 문학의 선구자로 재평가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회 내에서의 여성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정체성을 찾은 재니의 성장소설인 동시에, 기존의 백인 사회와 닮아가는 흑인 남성의 가부장적 성향에 대한 허스턴의 도전의식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자는 허스턴의 소설에 대한 기존의 비평, 즉 여성의 자아정체성 추구 과정이나 남성지배질서 전복 등과 같은 해체적 성향에 대한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에 내재된 허스턴의 생태학적 자연 친화주의에 대해 탐구하여, 작가와 문학 작품이 인간과 사회, 문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주변 환경과 맺는 유기적인 관계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양한 생태학적 논의들을 소설에 적용시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허스턴의 의식 속에 자리한 이상적 사회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들의 취향에 맞추어 그들이 읽고 나서 우쭐한 기분엔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희한한 주인공”(17)을 만들어냈다고 허스턴을 몰아세웠다. 아울러 소설의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흑인의 사투리와 민담 역시, “소설의 구성과 인물 모두를 부각시키지 못하므로 부적절하고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았다(Bell 120-21).

- 2) 『수와니 강의 천사』는 흑인 작가들의 소설 중 극심한 동화주의적 성격을 띠는 소설(Bone 169)로 인식되었고, 허스턴 소설의 고유한 특징이던 흑인 문화와 정서, 사투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흥미롭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은” 작품(Hemenway, *Zora Neale Hurston* 314)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II. 문학과 생태학

문학이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인간이 넓은 의미의 환경—시대, 사회, 문화, 경제, 역사, 정치, 철학, 학문 등—에서 생활하며 이러한 환경과 맺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폭넓게 다루면서, 인간의 궁극적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 각성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문학의 주요 영역이다. 한편 생태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시작된 박물학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나, 1866년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면서 알려지지 시작하였고,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추구되어온 광범위한 자연계의 현상을 포함하지만, 명백하고 검증 가능한 이론적 틀을 거의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매킨토시 385).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다양한 과학 분야와 접목된 이후, 생명체와 주위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영향—생명체의 파괴력과 환경의 오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유기체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심화되자, 근래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문분야(채수영 11)이다.

생태학(ecology)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집’이나 ‘마을’을 의미하는 ‘oikos’와 ‘학문’을 뜻하는 ‘logos’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생태학이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생태학은 환경과 그곳을 터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유기체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김운성 136-37), ‘집’의 개념에는 생명체가 거주하며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그리고 생태학 연구의 주체이자 객체인 인간(Homo sapiens)은 항상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이루

3) 스타우퍼(Stauffer)는 헤켈이 이 용어를 만들어낸 배경에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체와 환경간의 관계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공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헤켈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매킨토시 66에서 재인용). 한편 에거튼은 본격적인 형성 시기 이전의 생태학은 박물학의 역사와 비슷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논평하며,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의 논문인 <대기, 물 그리고 장소>를 “환경조건과 질병과의 연관 관계에 관해 연구한 생태학 프로그램의 시발점”으로 해석하였다(매킨토시 38-9에서 재인용).

며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 혹은 자연은 인간의 생태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비록 자연의 개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은 인간세계와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과는 달리, 인간의 개입이 없이 발생하는 제반 현상들의 총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서며 자연을 인간에게 이롭도록 이용할 수 있는 ‘통치·지배 가능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경향은 서양에서 수백 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⁵⁾ 그러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면 언제라도 무한히 제공해 주리라 여겨졌던 자연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20세기의 생태학적 관심은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자연을 보는 시각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자연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체계가 투영된 “이념태”(공명수 22)의 성격을 지니므로, 개개인의 자아의식과 집단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실존적 공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 공간은 그들이 만들어 낸 문화와 구분될 수 없으며(가타리 25), 인간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담아내는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성향, 혹은 주인공이 처한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는 글의 분위기를 이끌어

4) 환경이라는 용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연구대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적인 것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유동적인 개념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자 기본적인 것들(홀리 65-6)로 이해된다.

5) 서구 사상의 근간인 기독교에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신이 부여한 특권을 가지는 것에 비해 자연은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가장 인간중심적인 사상이다. 이에 대해 로렌 아이젤리(Loren Eiseley)는 “기독교는 자연으로부터 신을 빼앗고 자연 위에 인간을 올려놓았다”고 표현하였다(정화열 184에서 재인용). 한편 기독교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생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린네(Carl von Linné)는 자연을 신의 섭리와 평화가 반영된 조화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인간은 다른 생물들을 지배하는 중이며 동식물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존재(김윤성 131-34)이기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봄으로써 기독교적인 시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자연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가가 작품을 구성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선택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만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같은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과 결과는 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한 작가의 입장, 그리고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 문학작품은 사실 거의 없지만, 수많은 작품 중에서 생태주의적 자연관을 담고 있는 텍스트는 그리 흔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환경 파괴와 보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 이전의 작품들에서 생태주의적 특성을 찾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바로 허스틴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이다. 사실 허스틴의 여러 작품들이 자연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스틴의 선구자적 안목과 작가적 사명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그녀의 작품은 동시대 혹은 이후의 남성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밀려 폄하되어왔고, 근래 들어 작품 속의 흑인성 혹은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작품에 내재된 해체적 성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스틴의 소설에 드러난 생태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Ⅲ.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와 생태주의

그렇다면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의 인물과 내용 전개에 함축된 생태주의적 특성과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허스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선 여주인공 재니와 관계를 맺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재니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피(Leafy)이고 이는 나무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재니의 첫 남편인 로건 킬릭스(Logan Killicks)의 이름에도 나무를 상징하는 어휘가 들어있다. 로건 킬릭스는 ‘통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로그’(log)를 포함하고 있는데, 재니는 실제로 로건의 집을 “아무도 산 적이 없는 숲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루터기처럼 외

로운 곳”(a lonesome place like a **stump** in the middle of the woods where nobody had ever been, 강조는 필자)이라 느낀다.⁶⁾ 그의 집은 재니에게 적막감을 주는 생명력 없는 ‘그루터기’일 뿐이다.

재니의 두 번째 남자인 조디의 이름도 나무와 관련이 있다. 조디의 성인 ‘스타크스’(Starks)는 ‘황량한’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고, 재니와 조디가 자주 만나던 장소의 이름도 ‘스크럽 오우크스’(scrub oaks)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관계를 맺어온 이십여 년에 달하는 긴 기간에도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상황 설정은 조디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 상태’였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재니가 세 번째로 만나는 티케익 역시 나무와 연관된 이름을 지녔다. 티케익의 본래 이름 버저블 우즈(Vergible Woods)의 ‘버저블’(vergible)은 “베리터블’(veritable)의 사투리”(Gates,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175)로써, 그가 인간이 본래 지녀야 할 “참된”(Wall, “Tea Cake” 387) 성품의 소유자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앞서 재니의 두 남편들의 이름에 들어있던 활기 없고 생명력을 상실한 나무의 이미지가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는 ‘숲’을 의미하는 ‘우즈’(Woods)가 포함되어, 티케익이 지닌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Isis)처럼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간직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 재니가 생명력과 활기가 결핍된 로건 킬릭스와 조디 스타크스를 떠나 티케익에게 온 것은, 모든 동식물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대자연의 생태를 재니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티케익은 위계질서나 명령,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조디가 재니에게 내재화시키려 했던 인습적인 남녀 관계를 거부하며, 사냥과 낚시 등의 놀이 뿐 아니라 농사일과 집안일 등 모든 것을 재니와 함께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티케익은 조디와는 확연히 다른 이상적 남성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티케익은 탈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의 주변으로 모으는 “자석”(magnet, *TEWG* 132)과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6) Zora Neale Hurston,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New York: Perennial Classics, 1998), p. 21-2. 본 논문은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본문 인용에는 괄호 안에 *TEWG*와 쪽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그들의 집 대문 앞은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문화광장’이며, 재니는 이전의 두 남편과 함께 할 때와는 달리 외부의 구경꾼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Meisenhelder 71)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또한 티케익은 자연과 호흡하며 재니와의 삶의 터전인 에버글레이즈(Everglades)에서 자연의 순환방식에 맞추어 곡식을 심고 거두어들이기를 즐겨하는데, 그가 “달이 제 시기가 될 때를 기다려서야”(TEWG 191) 곡식을 심었다는 허스턴의 서술은 “그가 항상 뭇가를 심었다”(TEWG 191)라는 표현과 더불어 티케익의 자연친화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재니가 이전의 두 남편들과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티케익과 재니가 대등한 부부관계를 맺으며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에버글레이즈의 흑니토(Muck) 지역은 다소 습기가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오천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식물의 퇴비화 작용을 통해 짙은 잉크처럼 검고”(Grunwald 18) 윤택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여 폭우와 홍수를 막아주고, 인간이 토지를 경작하며 사용한 농약이나 농·공업용수의 유독물질을 제거하여 정화하며, 풍부한 자양분과 퇴적물을 보유하여 물속에서 미생물의 활동과 습지 식물들의 성장을 왕성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대습지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으로, 수온과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풍부한 영양을 함유한 물이 주변 생물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그러므로 어찌 보면 에버글레이즈의 이 흑니토지역은 인간이 만든

7) 각종 생활용수의 공급은 물론 소규모의 생활하수 처리, 목재 및 기타 건축자재의 공급, 다양한 동물 자원 및 광범위한 습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습지의 기능과 그 보유가치는 매우 크다. 에버글레이즈 대습지 역시 한동안 “유해한 벌레가 득실대고 해로운 파충류의 소굴”이자 “광활하고 쓸모없는 습지”(Grunwald 4)로 여겨지면서, 이곳을 ‘개발’하여 풍부한 곡식을 산출하고 주변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마치 미국인의 사명이자 임무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또한 습지의 가치는 인간이 사용하는 가방의 재료인 악어가죽, 인간의 식량인 송아지에게 위협이 되는 표범, 인간의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플라밍고 등, 오로지 인간의 활용대상으로서의 값어치만 중요시하는 풍조가 팽배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습지 개발계획이 시행된 후, 실제로 에버글레이즈의 절반 정도가 농업과 도로용으로 사라졌으며,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하게 해주는 지표종의 90% 이상이 에버글레이즈에서 자취를 감추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Grunwald 122-264). 이처럼 습지를 개

위계질서가 결코 통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에텐동산’과 같은 지역이다. 자연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개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공존하는 모습은 자연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자유분방하고 생명력이 충만하던 티케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흑니토지역의 자연 질서를 거슬러 채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점차 백인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허스턴은 독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백인 우월주의 가치관과 인간사회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깊이 물들어버린 티케익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물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티케익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티케익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에버글레이즈에 불어 닥친 폭풍우이다. 폭풍우가 에버글레이즈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견한 인디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피난을 떠난다. 소설에서 인디언으로 서술되어 있는 토착 미국인들(Native Americans)은 하늘을 아버지로, 그리고 땅은 어머니로 여기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므로, 모든 존재는 결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더 나아가서는 정복해야 할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서구의 자연관과는 무척 대조적인 것으로, 토착 미국인들에게는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이 위계질서 없이 공존하는 “확대 가족”(김옥동, 『상상력』 189)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토착 미국인들은 지구상에 존중받지 않을 것은 없으며, 문명인들의 시각에 잡초

발하여 그곳을 인위적인 ‘에텐동산’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습지가 생태계의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습지가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고, 2000년에 접어들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하여 인간에 의해 파괴된 습지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에버글레이즈는 “국가차원의 보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Grunwald 6, 263).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에버글레이즈 복원계획은 인간의 과학지식과 공학기술, 정치적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이자, 무엇보다도 인간이 욕망을 억제하고 지구의 자원을 다른 생명체와 나누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무대”(Grunwald 369-70)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로 인식되는 것에도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잡초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할 “동반자” 혹은 “협력자”(김옥동, 『상상력』 205-6)라고까지 여겼다. 서구의 기독교 사상과 계몽주의 철학이 합리적 판단력과 이성을 지닌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근대적 과학지식과 발전된 기술을 동원하여 대자연을 유린하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발끝에 거슬리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소중한 생명이며 우주 만물의 질서의 발현이라고 여기는 토착 미국인들의 자연관은, 만물에는 저마다 영혼이 깃들어있고, 그 영혼은 ‘위대한 영혼’(Over Soul)의 일부이며, 보이지 않는 이 커다란 원 속에 인간과 자연,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여기는 초월주의 사상과 거의 일치한다. 초월주의는 신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절대적 권위와 사회의 위계질서 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대자연과 영혼으로 연결시키며 자연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생태학적 양심을 지닌 인디언들을 무시하는 티케익의 태도이다. 피난을 떠나는 인디언들을 본 티케익은 “위험한 거면 백인들이 벌써 알았겠지”(TEWG 156)라고 말하며, “결코 틀릴 리가 없는 백인들”(Fanon 139)이 대수롭지 않아 하는 일에 온갖 야단법석을 떨며 분주히 발길을 재촉하는 인디언들을 비웃는다. 이것은 백인들의 우월함을 흑인인 티케익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백인들의 사고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타인종과 타문화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백인 우월의식의 표출이다.

생태계의 질서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어울리며 재니와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던 티케익이 자기의 이름처럼 ‘참되고 자연친화적’인 이전의 성향과 달리 점차 백인의 위계질서와 권위의식에 물들어가는 현상을 보이자, 허스틴은 그를 죽음으로 처리하여 생태적 질서로의 회귀를 도모한다. 다시 말해, 허스틴은 대자연의 소리를 외면하고 ‘어머니’가 될 생명력이 풍부한 재니에게 폭력을 가하며, 인간이 만들어 낸 위계질서의식에 사로잡힌 티케익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질서의 파괴성과 비합리성으로부터 재니를 해방시켜 그녀가 본래 지녔던 풍만함과 생명력을 되찾

게 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다.

IV. 조라 닐 허스턴의 생태의식

폭풍우가 몰아친 이후 물바다가 된 마을에서 티케익은 개의 위협으로부터 재니를 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개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린 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재니의 생명을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재니가 쓴 총에 맞아 죽음에 이른다. 여러 비평가들로부터 “형편없는 구성”(Hemenway, “Crayon Enlargements” 87)이자 “과잉살상행위”(Willis 126)라고 비난을 받은 이러한 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우선 필자는 티케익의 죽음이 생태학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에 허스턴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허리케인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고 온 재앙은 곧 물에 의한 것이고, 물에 대한 재니와 티케익의 공포심의 연장이 바로 물을 무서워하는 광견병이며, 광견병에 걸린 티케익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설정은 결국 그의 죽음이 필연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학에서 물은 모든 피조물과 산, 구름 등 세상만물의 근원을 비추는 우주의 거울이며, 고대문명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나, 종자의 근원으로, 혹은 지구의 즙으로 신성화되었다(공명수 26).⁸⁾ 물은 만물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은 물론 그 안에 창조와 파괴, 탄생과 죽음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자연의 일부이다. 지구상에 첫 생명을 품어 탄생시킨 물(바다)은 만물을 보존하고

8) 공명수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물이 지니고 있는 현상적 속성을 통해 신들이 자신들의 힘을 표출한다고 여겼다(26). 다시 말해서 물의 창조행위는 신들의 춤이고, 이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을 주재하는 자연의 순환, 즉 계절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자연의 순환은 곧 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표가 된다. 또한 티케익의 본명인 버저블 우즈를 이집트 신화와 연결시켜 보면, 티케익은 나일 강의 비옥한 토지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홍수와 초목을 관장하는 오시리스(Osiris)를 상징하며, 그 자체가 “나무의 근원이자 본질”(이운스 122)을 담고 있으므로 초목의 특성처럼 죽고 또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따라서 물과 티케익의 이름에서 드러난 속성으로 미루어보면 티케익은 죽은 후 물과 초목의 특성처럼 넓은 의미의 재탄생을 경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장시키는 생명수이자,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비정상적인 백인의 위계질서를 내재화한 티케익의 생명을 거둬가는 심판수이며, 스스로 앗아간 티케익의 생명을 순환시켜 재니의 의식 속에 되살려내는 소생수이다. 물의 생태적 특성은 바로 순환이며 자연도 마찬가지로 순환을 거듭하는 ‘재생’의 공간이기에, 티케익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폭풍우가 티케익을 죽인 결정적 원인이라고 허스턴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재니의 발포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재니가 자기를 표적으로 겨누는 티케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티케익의 본래의 자아를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를 쏘 죽인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티케익은 재니의 손에 죽은 것이다. 광견병에 걸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티케익을 굳이 재니의 손에 죽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허스턴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재니의 어린 시절 경험을 서술한 아래의 장면을 살펴보자.

그녀는 꽃가루를 머금은 벌 한 마리가 배꽃의 성스러운 곳으로 내려가자, 수천 개의 꽃받침들이 사랑의 포옹을 맞이하려 오므리고, 뿌리부터 어린 가지까지 황홀경에 빠져 전율하며 기쁨에 젖어 모든 꽃들이 사정(射精)을 하고 거품을 내는 것을 보았다 ... 그러자 재니는 몸을 나른하고 노곤하게 만드는 잔인하리만치 달콤한 고통을 느꼈다.

She saw a dust-bearing bee sink into the sanctum of the bloom; the thousand sister-calyxes arch to meet the love embrace and the ecstatic shiver of the tree from root to tiniest branch creaming in every blossom and frothing with delight ... Then Janie felt a pain remorseless sweet that left her limp and languid. (TEWG 10-1)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며 재니가 목격한 것은 곤충에 의한 식물의 수정과정이다. 어린 시절 벌이 배꽃을 수분해주는 현상을 본 후 여성의 성을 인식한 재니는 그 이후로 남성의 지배에 예속되는 소극적인 여성성이 아닌 적극적이

고 활기찬 여성성을 보이며, 작품 여러 곳에서 건강하고 풍만한 육체와 생명력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선 소설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재니는 비록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풍만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다. 재니가 “바지 뒷주머니에 포도송이를 넣은 것처럼 탱탱한 엉덩이”와 “깃털처럼 훑날리는 탐스러운 머리채”(TEWG 2)를 지닌 여성으로 그려진 것은, 재니가 보이는 여성의 성이 사회 통념상 “없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박경운 11-2)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여성의 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⁹⁾ 특히 재니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식물의 수정, 즉 육체와 육체의 결합과정을 통해 ‘생물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생산과 양육, 그리고 보살핌을 동시에 수행하는 육체로서의 여성과 여성성을 인식하고 있다.

흔히 여성은 자연이나 물질적인 것, 감정적인 것, 구체적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며, ‘물질’이라는 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라는 말과 연결된다.¹⁰⁾ 또한 모든 문화와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자연은 항상 여성”(정화열 246)이었고, 여성이 비옥함과 다산이라는 측면에서 자연과 유사한 상징성을 가지며, ‘지구나 대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속성’(김옥동, 『문학

9) 마치 성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장면은 재니가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현상(Cixous & Clément 17-8)일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매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표출하며 “황홀경”(jouissance)을 경험하는 장면이다. 황홀경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라캉(Jacques Lacan)이 ‘jouissance’를 ‘성적합열’의 측면만 부각시켜 정의한 것과 달리, 성적쾌락은 “쾌락”(pleasure)으로 정의하고 총체적인 즐거움이나 환희는 “황홀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정화열은 ‘jouissance’를 말놀이 방식으로 고쳐 써보면 “jouïs sens(나는 듣는다)”가 된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시각중심적인 ‘코기토’의 남근주의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질서를 전복(189-92, 282-83)시키는 용어로 이해한다. 황홀경에 대한 크리스테바와 정화열의 분석을 이 장면과 연결시켜보면, 이와 같은 재니의 건강한 성욕은 남성의 성기가 잠시 “머무는 곳”(Irigaray 23)의 의미로만 인식되던 여성의 성기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며, 재니의 자유롭고 건강한 여성성은 ‘어머니로서의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0) 어머니를 의미하는 영어의 ‘mother’이나 독일어의 ‘mutter’는 모두 라틴어로 ‘어머니’의 뜻을 가진 ‘mater’에서 유래된 것이며, ‘물질’을 의미하는 ‘matter’도 ‘mater’가 변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구 혹은 대지는 사물의 질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들어 비평가들이 그것에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김옥동, 『상상력』 157)

생태학』 366)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름다움과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여성’ 재니는 결국 대지를 기반으로 한 ‘자연,’ 즉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연’(Mother Nature)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어머니로서의 자연’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면이 많은 처녀에 비유되며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개발되고 수탈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다산을 상징”(이온스 141)하는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 여신이나 그리스 신화의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Gaia)처럼, 씨앗이 싹이 터서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잉태와 성장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재니가 티케익을 죽인 것은,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공존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연의 질서에 거슬러 백인사회의 폐단인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답습하고 재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티케익을 재니 스스로 거부하는 적극적인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허스턴은 에버그레이즈의 자연의 순리와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오던 재니와 티케익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티케익의 태도가 이상적인 자연과 사회의 질서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변화하자, 재니가 티케익의 “가부장질서와 폭력의 역사”(Burrows 448)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름조차 히브리어로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Adama)에서 비롯된 최초의 인간 아담(Adam)의 후손인 인간(김옥동, 『상상력』 243)이 자연과 맺었던 원초적 유대관계를 거부하며,¹¹⁾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절대적·유일한 주인이고 그들이 근대화 혹은 계몽주의라하며 빚어낸 생태위기와 허무맹랑한 믿음—백인우월의식, 남녀차별의식, 서구우월주의 및 인종차별주의 등—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연을 인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정화열 176-77)이다. 하지만 허스턴이 보기에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인종차별적 시각을 지닌 남성이 여성을 무시하고 소유 대상으로 간주하듯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의 대상이나 도구로

11) 히브리어의 예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의미하는 영어 ‘human’과 라틴어 ‘humanitas’는 모두 라틴어로 ‘흙’을 의미하는 ‘humus’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오래 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이 흙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자연의 흐름과 순리를 떠나서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죽은 후에 돌아가는 곳도 ‘흙’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인식에는 (인간의) ‘탄생’과 (자연으로의) ‘회귀,’ 즉 고대인들의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자연관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하고, 둘 사이에 생산적이고 상호적인 긍정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의 터전인 좁은 의미의 ‘사회’와 넓은 의미의 ‘자연’이 결국에는 비자연적인 위계질서와 파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능동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만행으로부터 상처 입은 자연이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크로포드 홀링(Crawford Stanley Holling)은 어떤 환경에 가해진 외부압력에도 스스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성’(resilience)이라고 일컬었다. 복원성이란 생태계가 외부 교란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실제로 인간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혹은 재해로 오염된 환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며 차츰 원래의 생태계의 모습과 역할을 회복한다. 하지만 외부의 충격이나 훼손 정도가 너무 크면 생태계는 영원히 제 기능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홀링은 이 지점을 ‘역치(閾值)’(threshold)라 부른다(김윤성 212).¹²⁾ 홀링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복원성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고 폭력에 시달리던 ‘자연’(여성=재니)은, 역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험요소’(남성

12) 홀링은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를 비롯한 미국 내의 여러 핵심 인물들을 모아 앞서 언급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운하 건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구조적인 침수지역이 된 에버글레이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복원 사업의 기초를 만들어, 에버글레이즈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증거이자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모델”(Grunwald 6)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홀링의 복원성 개념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철저히 균형이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연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며, 생태계 교란 이후에 자연은 이전의 완전 균형의 상태가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의 평정 상태로 변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은 항상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되 정답이 여러 개인 방정식, 혹은 비선형(nonlinear)과 같다. 또한 생태계가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복성”(redundancy)을 지녀야 하며, 중복성을 지닌 동물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복원력을 유지한다(김윤성 213-20). 홀링의 복원성 개념은 가이아이론을 정립한 러브록(James E. Lovelock)의 “항상성”(김윤성 103-4), 그리고, 섭생물지리학 분야를 개척한 윌슨과 맥아더(Edward Osborne Wilson & Robert Helmer MacArthur)의 “종다양성”(biodiversity) 개념과도 유사하다(김윤성 229-39). 또한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로 연구하며, 인간이 자연에 대한 파괴행위를 최소화하여 자연이 스스로 생산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쉬(George P. Marsh)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매킨토시 437-38).

=티케익)를 제거한 것이며, 재판 내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재니의 모습은 상처받은 자연이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정을 찾아가는 ‘치유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오랜 침묵 속에서 치유를 마치고 이튼빌(Eatonville)로 돌아온 재니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인 피비(Phoeby)에게 들려준다. 피비는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재니의 긴 인생여정을 곁에서 들어주며 재니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사실과 상상,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는 문학의 기본은 독자로 하여금 삶의 근원을 성찰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고,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사건 자체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인 정보와 달리 듣는 이와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 듣는 이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소통한다(가타리 55 재인용). 이야기나 텍스트의 의미는 늘 말하는 이나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듯이, 허스턴은 재니의 이야기가 듣는 이인 피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재니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피비가 자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한다. 비록 허스턴이 재니의 이야기를 듣는 이로 설정한 사람은 피비 단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야기(발화)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발화수반)를 통해, 재니의 이야기는 피비에게 작지 않은 흔적을 남기며 그녀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발화효과)시킨다.¹³⁾ “너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10 피트는 자란 거 같아, 재니. 조금 있다가 샘한테 낚시 데려가 달라고 할거야”(TEWG 192)라는 피비의 말은 피비와 재니가 이야기로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 명의 듣는 이인 피비의 공감은 다른 수많은 잠재적 듣는 이들과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가능성을 지닌 것이고, 그러하기에 작가 허스턴은 재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과감한 진술”(Racine 291)이자 영향력 있는 발화행위로 독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자

13) 생태비평을 최초로 논한 미국의 이론가 웬델 해리스(Wendell V. Harris)는 문학비평 이론을 크게 수정주의이론과 생태이론으로 분류하였는데, 생태이론 중에서 말하는 이나 저자가 듣는 이와 독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 특히 주목하며 이를 ‘해석 생태학’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말하는 이나 저자가 개연성을 가지고 맥락을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이나 독자 역시 이야기의 맥락을 조정하며 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해석생태학이다(김옥동, 『문학 생태학』 264-69).

세를 보인다.

피비와의 대화를 마친 재니는 등불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채 머리를 빗어 내린다. 그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는 티케익과의 사랑이 되살아나고, 그러자 방 안 구석구석, 모든 의자와 가구들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흐느끼기”(singing and sobbing, *TEWG* 192-93) 시작한다.

그러자 티케익이 다가와 그녀가 있는 곳 주위를 맴돌았고, 한숨 섞인 노래는 창밖으로 날아가 소나무 위에서 빛났다. 태양을 어깨에 걸친 티케익이었다. 물론 그는 죽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기를 멈추기 전에는 그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Then Tea Cake came prancing around her where she was and the song of the sigh flew out of the window and lit in the top of the pine trees. Tea Cake, with the sun for a shawl. Of course he wasn't dead. He could never be dead until she herself had finished feeling and thinking. (*TEWG* 193)

재니는 죽은 티케익을 회상 속에서 다시 ‘부활’시킨다. 광견병에 걸려 물을 무서워하던 티케익의 목숨을 스스로 거둬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니는 티케익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절대적 힘을 행사한다. 재니는 티케익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회상’과 ‘애도’로써 그를 기린다. 티케익을 기억하는 재니에게는 평화가 깃들어있고, 자신의 삶이 속속들이 배어 있는 그물망 같은 수평선을 어깨로 감아 두르면서 재니는 자신의 영혼과 마주한다. 재니는 자신의 경험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 티케익을 기억 속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이 부분은 생태 페미니즘이 타자에 대해 견지하는 애정 어린 시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페미니즘 시각에서 보면,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해오던 남성은 여성의 적으로 인식되며 철저한 거부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영역과 역할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조화와 균형이 와해되듯이,

생태 페미니즘은 남성을 여성들과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억압주체였던 타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을 견지한다.¹⁴⁾ 허스틴은 재니의 기억 속에 티케익을 되살려 영원히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태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에코토피아(ecotopia), 즉 인간이나 자연, 성별이나 계급, 나이나 능력, 인종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 생태적 유토피아 세계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면은 생태철학이 지향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육체적인 행위뿐 아니라 ‘영혼’의 개념 역시 여성적(정화열 195-96)이므로, 이 장면에는 ‘자신의 품에서 영혼을 기르는 여인(재니)’이 가지는 ‘아늑한 이미지’와 ‘거룩한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재니가 티케익의 영혼을 자신의 기억 속에 품어 ‘소생’시키는 것은 보살핌의 윤리를 지닌 여성의 생명력이며, 보살핌의 윤리는 생태학과 생태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허스틴은 생태계, 즉 우리가 사는 지구와 자연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직적 자연관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인간이 처한 환경은 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작가의 의도와 작품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소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나, 결코 작가가 경험한 사회

14) 생태 페미니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네스(Arne Næss)는 1970년대 이전의 환경운동은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생태계를 바라보며 생태계가 현대문명과 사회 유지를 위한 전제에 불과하였다고 진단하는 동시에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심층생태주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아(self)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야만 생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리’나 ‘개입’이 없는 “야생성”이라고 주장하였다(김윤성 59-63; cf. 김옥동, 『문학 생태학』 367-74).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작품에서 표현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모습은 작가가 어떠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재현된다. 그러므로 문학을 생태주의와 연관시켜 보면, 문학은 독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생태계의 본래 질서와 조화로우심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가 맡아야 할 의무를 담아냄으로써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허스틴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는 문학의 이러한 의미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생태비평이 작품의 소재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 즉 생태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인간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허스틴의 생태주의적 시각이 매우 잘 반영된 작품이다.

우선 실제로 환경위기가 생태살인(ecocide)의 지경에까지 다다른 근래의 상황에서, 허스틴은 주요 등장인물에 나무와 관련이 있는 이름을 붙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백인 남성 우월주의 가치관에 몰들어 여성과 타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티케이익을 여성이자 자연이 육화(肉化)된 재니에 의해 죽음에 이르도록 처리하면서도, 티케이익을 재니의 회상과 영혼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말을 구성함으로써, 허스틴은 보살핌의 윤리를 실천하는 여성의 모습과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허스틴은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또 다른 인간에 대해 궁극적으로 지녀야 할 새로운 시각, 즉 “주체는 자명한 존재가 아니며”(가타리 16)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에, 인간은 그것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 용 문 헌

- 공명수.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선택』. 서울: 동인, 2010.
-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서울: 민음사, 1998.
- _____. 『생태학적 상상력』. 경기: 나무심는사람, 2004.
- 김윤성.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서울: 개마고원, 2011.
- 박경운. 『미국소설에 나타난 여성 색수열리티』.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6.
- 윤수중. 「분자혁명에서 생태철학으로」. 『세 가지 생태학』. 서울: 동문선, 2003. 87-108.
-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이동수·김주환·박현모·이병택 옮김. 서울: 아카넷, 2005.
- 채수영. 『문학생태학』. 서울: 새미, 1997.
- 로버트 P. 매킨토시. 『생태학의 배경』.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베로니카 이온스. 『이집트 신화』. 심재훈 옮김. 서울: 범우사, 2003.
- 아모스 H. 홀리. 『인간생태학』. 홍동식·강대기·민경희 옮김. 서울: 일지사, 1995.
- 펠릭스 가타리 『세 가지 생태학』. 윤수중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 Bell, Bernard E. *The Afro-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Amherst: The U of Massachusettes P, 1987.
- Bone, Robert A. *The Negro Novel in America*. New Haven: Yale UP, 1965.
- Burrows, Stuart. "You Heard Her, You Ain't Blind': Seeing What's Said in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Novel* 34 (2001): 434-52.
- Cixous, Hélène and Catherine Clément. *The Newly Born Women: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24*. Trans. Betsy Wing.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 Gates, Henry Louis Jr. "Afterword." In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Zora Neale Hurston. New York: Harpers Perennial, 1990. 195-205.
- _____.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Hurston and the Speakerly Text."

- Zora Neale Huston: Critical Perspectives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154–203.
- Grunwald, Michael. *The Swamp*. New York: Simon & Schuster, 2006
- Hemenway, Robert E. "Crayon Enlargements of Life." *Bloom's BioCritiques: Zora Neale Hurston*.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73–99.
- _____. *Zora Neale Hurston: A Literary Biography*. Urbana, Illinois: U of Illinois P, 1980.
- Hurston, Zora Neale.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New York: Perennial Classics, 1998.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and Carolyn Burk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Meisenhelder, Susan Edwards. *Hitting a Straight Lick with a Crooked Stick: Race and Gender in the Work of Zora Neale Hurston*. Tuscaloosa, Alabama: The U of Alabama P, 1999.
- Racine, Maria J. "Voice and Interiority in Zora Neale Hurston's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African American Review* 28 (1994): 283–92.
- Wall, Cheryl A. "Tea Cake." *The Concise Oxford Companion to African American Literature*. Ed. William L. Andrews, Frances Smith Foster, and Trudier Harris. New York: Oxford UP, 2000.
- Willis, Susan. "Wandering: Hurston's Search for Self and Method." *Zora Neale Huston: Critical Perspectives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110–29.
- Wright, Richard. "Review of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Zora Neale Huston: Critical Perspectives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16–7.

Abstract

A Study on Ecological Features of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Choi, Sun-Geun

This paper analyzes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Zora Neale Hurston's most well-known novel, focusing on the ecological aspects which are found in the plot as well as in the names of the main characters. After many years of unfair evaluation, the works of Hurston, including this novel, started to have been reevaluated by recent critics and authors, as various literary assessment methods have changed, and black women writers have gained public reputations as well.

Since the publication in 1937,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has been misunderstood in a patriarchal and racist literary culture. Hence, it has been the center of both acclaim and criticism, because it is a novel of a black woman who kills her third husband on her own in a white, male-dominated society. Contrary to former scholars who have paid attention only to the identity growth of Janie, the main female character of this novel, I try to focus on Hurston's implied but ongoing interest in the relations not only between men and women, men and society, but also between men and nature.

In this novel, Hurston gives all of the male characters unique names which are related to trees; Logan Killicks, Jody Starks, and Vergible Woods. She also represents Janie as a fertile and lively woman with many characteristics of 'Mother Nature.' In addition, Hurston effectively conveys her points of view about men and nature, by taking away her husband Tea

Cake's life and giving him back to life in her own memory at the end of the novel.

These ecological features of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show that men cannot live by themselves without positive interactions with other beings on the Earth, that we human beings should have a brand-new eco-critical vision that each and every being has its own value and role in the ecosystem on the Earth, and that we humans should also try hard to find the best way to live harmoniously together and cooperate with other beings on the Earth.

Key Words: ecology, nature, mother, environment, eco-criticism

생태학, 자연, 어머니, 환경, 생태비평

논문접수일: 2014.05.25

심사완료일: 2014.06.16

게재확정일: 2014.06.21

이름: 최 순 근

소속: 우송대학교

주소: 300-718 대전시 동구 백룡로 59 우송대학교 교양관 402호

이메일: tnsrms71@hanmail.net